『제임스조이스저널』
제31권 1호(2025년 6월) 31-55
http://dx.doi.org/10.46258/jjj.2025.31-1.31

일기, 정치적으로 다시 읽기: 『1984』, 『젊은 예술가의 초상』, 「유품」을 중심으로

김 경 숙

I. 들어가며

문학에 있어서 '일기'는 시나 소설과 달리 문학적 기량이 부족한 여성이나 아이들이 가볍게 쓰는 글의 형태로 오인되어 '중요하지 않은 장르'(lesser genre)라는 낙인이 찍혀 진지한 문학 연구에서 배제되어왔다. 단적으로, 영문학 작품 선집의 권위 있는 정전이라 할 수 있을 『노튼 영문학사』(*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는 일기를 주요한 장르로 다루고 있지 않다.[1] 그러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가로지르는 글쓰기

1) 2024년에 발간된 『노튼 영문학사』 11판을 보자면, "낭만주의 시대"(The Romantic Period, Volume D)에 도로시 워즈워스(Dorothy Wordsworth)의 "Alfoxden Journal"과 "Grasmere Journal" 등이 수록되어 있고, 『노튼 여성문학사』(*The Norton Anthology of Literature by Women*)의 경우 나이트(Sarah Kemble Knight)나 롤랜슨(Mary Rowlandson)과 같은 작가의 일기체 기록 형식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문'(prose) 또는 특정 작가 단위로 분류하여 수록되

로서 일기가 갖는 ‘양면성’과 ‘전복성’은 문학 텍스트가 갖는 정치적 차원과 연관되며, 일기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제대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일기’ 문학에 대한 연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나 소설 등 다른 장르로 활약한 작가의 일기가 사후에 발견된 경우 이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일기 형식을 표방한 작품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일기는 독자적인 연구 대상이 되기보다는 저자가 남긴 편지나 노트와 더불어 해당 작가의 작가적 의도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되는 데 그치는 경향이 많다. 또한, 일기문학으로 발행된 텍스트의 경우도 ‘일기’라는 형식 자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안에 담긴 내용에 대한 분석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존 연구 대부분은 한 작가의 일기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해당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여러 작가의 텍스트에 포함된 일기를 분석함으로써 일기라는 형식 자체에 주목하며 일기가 갖는 장르의 독자성과 전복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본 연구가 갖는 희소가치는 작지 않다.

개인적인 삶과 생각의 기록이라는 일기의 장르적 정체성은 일기를 진지한 문학 장르로 규정짓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개인적 기록의 테두리가 방패가 되어 오히려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를 선사하기도 한다. 나아가, 일기는 공식 역사 담론에서 다루지 않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일종의 서벌턴(subaltern)적 기록으로서 거시적 역사의 이면을 폭로할 수 있다. 겉으로는 순수하게 사적인 담론처럼 보이지만, 공식 역사 담론에 균열을 만들어 전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일기의 가장 큰 특성이다.

요컨대 본 논문의 목적은 일기라는 장르에 대한 정치적 재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단순히 작가의 사생활과 작품의 의도를 파헤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기라는 형식 자체가 갖는 정치성을 중심으로 문학 텍스트를 재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기’ 형식이

어 있을 뿐, ‘일기’라는 장르로 특정하여 다루지 않는다.

포함되어 작품 전체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로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1984*),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단편 「유품」(“The Legacy”) 등 세 작품을 선정하여 이들 작품에 삽입된 일기 서술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일기 형식이 작품 전체의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과 그 정치적 함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세 편의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일기 형식이 내포하는 다층적 의미와 그 문학적·문화적 함의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오웰의 『1984』에 등장하는 윈스턴(Winston Smith)의 일기는, 그 작성 행위 자체만으로도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하나의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감시와 통제의 상징인 텔레스크린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몰래 써 내려가는 사적인 사유는, 사적 영역을 전면적으로 억압하는 오세아니아 체제의 기반을 흔든다. 한편,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후반부에 삽입된 스티븐(Stephen Dedalus)의 일기는, 그가 추구하던 예술 이론을 실천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서술 시점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인공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의 통제권을 획득한다. 성장소설이라는 장르가 통상적으로는 기존 질서를 내면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때, 이 일기는 그러한 영향력으로부터 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울프의 「유품」에서는 안젤라(Angela Clandon)가 남긴 일기가 가부장적 질서에 균열을 내는 상징으로 작용한다. 정치인 남편이라는 공적 권위에 맞서, 안젤라가 일기를 통해 발화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그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이며, 그녀가 남긴 기록은 남성 중심적 정치 담론에 대한 작지만 의미 있는 저항의 흔적으로 남는다.

II. 일기, 사적 기록에서 문학이 되기까지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일기문학은 홀로코스트의 비극 속에서 감

금 생활을 견뎌야 했던 사춘기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랭크(Anne Frank)의 『안네의 일기』(*Anne Frank: The Diary of a Young Girl*)이다. 2차 세계대전 중 네덜란드를 점령한 독일 나치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은둔생활을 한 유대인 가족의 삶을 담은 『안네의 일기』는 집중 캠프에서 안네가 죽은 이후 1947년에 출판되었다. 서문에서 엘리너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린 소녀가 쓴 이 책은 전쟁에 대한 그리고 전쟁이 인류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코멘트"(xiii)라고 평하며, 그 어떤 학술 자료보다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 정신의 타락"(xiii)을 드러낸다는 극찬도 덧붙인다.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기록과 문학은 다수이다. 그러나 한 소녀의 일기 안에 비스듬하게 새겨진 홀로코스트에 대한 공포는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

비록 전문 문학비평가는 아니지만 루스벨트의 지적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xiii)는 사실이 바로 일기문학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다. 결국, 그 어떤 공적 서사보다 사적 서사가 주는 진정성 있는 울림은 더 은밀하고 깊게 파고든다. 일기장 시작 부분에 안네 프랑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한 번도 타인에게 그런 적은 없지만, 나는 이 일기장에 완전히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일기장이 나에게 큰 지지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xvii). 이렇듯 일기는 비밀을 폭로하는 기능과 더불어 그 과정에서 일기 작성자의 주체 의식을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기능도 수행한다. 물론 일기를 통해 폭로되는 비밀은 순수하게 사적인 차원에 묶어둘 수는 없기에 치밀한 분석을 요하는데, '일기'의 어원과 문학사에서의 전개 과정은 '일기'가 갖는 양면성을 드러낸다.

'일기'를 뜻하는 용어 'diary'는 '매일 받는 용돈'(daily allowance)을 뜻하는 라틴어 'diarium'에서 유래했다. 또한, 일기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 'journal'은 하루를 뜻하는 프랑스어 'jour'에서 유래했다. 결국 'diary'와 'journal' 그리고 우리말 '일기' 모두 매일의 기록을 뜻하는 셈이다. '매일의 기록'이라는 '일기'의 어원은 진지한 문학 장르로서의 인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사소한 일상생활의 기록은 진지한 문학이 되기 어렵

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매일의 기록이라는 점은 일종의 회계 장부나 연대기와 같은 공적 기록으로서의 특징과 연결된다. 르네상스 이후 일기가 은밀하고 사적인 고백의 장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변모한 것을 생각하면 매우 아이러니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일기는 그 어원적 의미와 발생 과정 자체부터 뫼비우스의 띠처럼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양측에 걸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일기 형식의 기원을 고찰할 때 가장 이른 예로 거론되는 텍스트는 기원전 약 2500년경 파피루스에 기록된 고대 이집트의 일지 『머러의 일기』(*Diary of Merer*)이다. 이 문서는 기자(Giza)로 석회석을 운반한 경로와 수량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투라(Tura) 지역에서 출발한 물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초기의 일기가 전적으로 사실적 정보만을 담고 있어, 개인의 정서나 내면적 고백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Tallet and Lehner). 이후 2세기에 그리스어로 쓰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의 『명상록』(*Meditations*)은 철학적 사유와 내면 성찰을 일기 형식으로 구성하며, 일기가 지닌 사적 기록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근대적 의미의 일기에 가까운 글들은 중세 신비주의 문헌들에서부터 본격화되며, 이 시기의 일기들은 주로 외적 사건과 내면의 정서가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Lejeune 23-30).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며 일기는 점차 고백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 시기의 일기는 외부 세계의 사건에 대한 개인의 감정과 사유를 반영하면서도, 통상 출판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만 남겨졌다.

‘일기’(diary)라는 용어가 문학 작품에 최초로 등장한 예는 1605년 초연된 벤 존슨(Ben Jonson)의 희곡 『여우』(*Volpo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니요, 이건 내 일기(diary)라오. 여기다 내가 하루 동안 한 일들을 적어두는 게지”(Act IV, Scene I, Line 134)라는 대사는 당대 잉글랜드 극장에서 회계 및 일상적 사실을 기록한 공책을 ‘diary’라 지칭했음을 시사한다.

일기는 작성자의 사적인 삶을 드러내는 수단일 뿐 아니라, 당대의 사회·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 기록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익명의

프랑스 사제가 1409년부터 1431년까지 기록한『파리 부르주아의 일기』(*Journal d'un Bourgeois de Paris*)는 샤를 6세와 샤를 7세의 통치 시기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사료로 간주된다.

개인의 일상사가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시점은 16세기와 17세기로, 이는 개인이라는 존재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와 궤를 같이한다. 가계서의 범주에 머물던 일기는 점차 자아 성찰의 기능을 지닌 글쓰기 형태로 변화하며, 그 전환점은 일반적으로 17세기 후반으로 지목된다. 조너선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스텔라에게 쓴 일기』(*The Journal to Stella*)는 글쓴이의 야망, 애정, 재치, 성격적 기벽 등을 투명하게 드러내며 18세기 일기문학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한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일기문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 대표적 예로 새뮤얼 피프스(Samuel Pepys)의『피프스의 일기』(*The Diary of Samuel Pepys*)를 들 수 있다. 비록 이 일기는 17세기에 작성된 것이나, 10여 년에 걸쳐 속기문으로 기록된 내용을 해독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1820년대에 이르러서야 출판될 수 있었다.『피프스의 일기』는 찰스 2세의 대관식, 런던 대역병, 런던 대화재, 네덜란드 침공 등 왕정복고기의 주요 사건들과 함께, 당시 영국인의 일상사를 세밀하게 담아냄으로써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이 일기의 서두부터는 정치적 정세에 대한 평가와 개인적 감정의 토로가 교차되며, 사적 글쓰기가 공적 사건의 증언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 지난해 연말 감기 한 번 걸린 걸 제외하고는 아프지 않고 건강 상태를 매우 훌륭히 유지할 수 있었음에 대해 신에게 축복을 보낸다. 나는 아내와 하녀 제인과 셋이 액스 야드에 거주했다. 아내가 7주간 생리를 하지 않아서 임신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지난해 마지막 날 생리를 시작했다. . . .
> 나라의 상황은 이러했다. 램버트 경의 교란 이후 소위 잔부의회가 최근 다시 제 자리를 찾아 복귀했다. 군대 지휘관들은 모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러슨은 여전히 강에 나가 있고, 몽크는 스코틀랜드에서 군대를 이끌고 있다. 램버트 경만이 아직 의회로 복귀하지 못했는데, 명

령이 있기 전에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 (Pepys)

1660년 1월의 일기를 기록한 위의 인용문 첫 단락이 아내의 임신 여부와 관련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두 번째 단락은 국가의 정치 상황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코멘트로 이루어져 있어 같은 인물이 작성한 같은 날의 일기라는 것을 의심케 한다. 공적 담론과 사적 담론이 씨실과 날실이 되어 짜여지는 직조물로서 '일기'라는 문학 장르에 대하여 『피프스의 일기』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렇듯 독특한 특징을 갖는 일기문학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이유는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다. 비평가 메리(Bruce Merry)는 일기 특유의 사적이면서도 유연한 형식적 특징이 문학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왔다고 지적한다: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사실이긴 하지만 일기는 가장 유연하고 탄력적인 문학장르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학 형식에 대한 평가에 거의 포함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일기에 대해 본능적으로 '쉽고,' '편한' 것이라 생각하고, 또 때로는 작가의 작품이나 집필 과정에 대해서 혹은 개인적 연애사에 대해 무언가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너무도 당연하게 느낀다"(Merry 3). 메리는 소설과 같은 타 장르가 추구하는 '허구'와 달리 일기는 '진실'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고 지적하며, 결론적으로 일기를 문학 장르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을 힘주어 강조한다(Merry 14). 메리의 연구는 일기가 문학 장르로 자리매김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충실히 설명하되, 일기만의 장르적 특성－양면성과 전복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일기가 누리는 형식적 규제의 부재는 형식적 자유를 허용함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장르로 자리매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등 양날의 검이 된다. 일기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총망라하여 『일기에 관하여』(*On Diary*)를 편찬한 르죈(Philippe Lejeune)은 일기의 형식적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언급한다: "어떠한 정형도 없고 특정 내용도 요구되지 않는다. 마음대로 써도 된다"(168).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형식적 헐

거움이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일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일례로 스토퍼(Donald Stauffer)는 자신의 저서 『1700년 이전 영국 전기문의 예술』(*The Art of Biography Before 1700: Eminent Lives and Anonymous Lives*)에서 "일기에는 숙고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술적 구조의 외양조차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15)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손정희 역시 「엘리스 제임스와 '치유적 일'로서의 일기 쓰기」에서 미국문학사에서 일기는 주로 여성의 장르이며 사적인 장르로 간주되었음을 지적하며, "본격적으로 여성의 장르로 규정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젠더에 근거하여 구분 짓는 가정 내 이데올로기(domestic ideology)가 팽배함에 따라 사적 영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일기 장르는 여성의 전유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8)고 지적한다. 하지만 일기를 사적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었고, 이제 일기는 한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특정 개인이 조망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쟁점들에 대한 기록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일기 쓰기를 통해 일기의 저자/화자는 자신의 글의 맥락 속에 사회적, 문화적 공간을 연결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에, 일기를 해석하는 작업은 문서가 유통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함께 살펴야만 하는 복합적 해석의 영역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기가 '사적이며 동시에 공적인 기록물'(Bunkers 17)이라는 데 동의하며, 일기 쓰기는 개인의 기록이자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개인의 창을 통해 기록하는 행위로 볼 수 있겠다"(손정희 9). 손정희의 연구는 일기가 갖는 양면성에 주목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을 제공하나, 한 작가의 일기에만 국한된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최은아는 「일기에서 SNS로: 매체변화에 따른 일기의 장르사적 연구」에서 "반교양소설로 간주되는 『야콥 폰 군텐』의 작가 로베르트 발저는 모든 허구적인 글쓰기의 토대가 자전적인 일기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일기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꾸며낸 허구이며, 모든 허구적인 문학적 글쓰기는

바로 이 자전적인 허구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106)고 지적한다. 일기에는 연대기적 기록으로서 갖는 객관성과 개인의 주관적 기록으로서 갖는 주관성, 진실을 담보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허구적 문학으로서 갖는 허구성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문학 장르로서 일기가 갖는 매우 복잡미묘한 특징을 언급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라 할 수 있다.

러쉬(Janice L. Rush) 역시 자신의 논문 「일기 문학 장르」("The Diary Genre of Literature") 서문에서 일기가 갖는 공공성과 사적 특성의 혼재를 지적한다: "은밀하고 꾸밈없고 진심을 담은 일기는 인간의 내적 자아를 보여준다. 일기는 역사가가 사실, 생각, 관계를 확증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은밀한 희망과 공포를 지닌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도록 역사가를 돕는다"(Rush v). 결국, 일기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모두 걸쳐서 존재하며 삶을 영위하는 인간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러쉬 역시 일기를 문학장르로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형식적 조건을 내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임을 인정한다(119). 동시에 러쉬는 형식적 특징의 부재로 인하여 장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 언급하며 결국 일기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 본연의 존재가 갖는 가치 그 자체임을 강조한다: "일기가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 경박하고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인간보편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일기라는 문학 양식이 가장 큰 중요성을 갖는 것은 바로 인간의 영역 그 자체이다"(121). 러쉬의 연구는 일기가 갖는 문학적 가치를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기가 갖는 사회비판적 측면에 대한 언급이 결핍된 한계를 보인다.

한편 곽차섭은 「일기 연구의 이론과 실제: 서양의 경우를 중심으로」에서 일기가 갖는 특징을 명쾌하게 요약한다. 그에 따르면, 일기는 일관성과 중심점을 결여한다는 점에서 '분절성'을 갖고, 지극히 사적이자 개인적인 고백으로서 갖는 '비밀성,' 그리고 시대나 집단이 부과하는 규범에 따르지

않고 글을 씀으로써 '전복성'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형식에도 편입되지 않고 하나의 독자적 장르를 이루며 오직 자아만이 주체가 되는 열려있는 글로서 '자율성'을 담보한다.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일기문학의 '전복성'에 대해 곽차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적 검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 . . 사회적으로 공인된 담론들을 암암리에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대안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곽차섭 116). 또한, 곽차섭은 "일기는 파편적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삶의 모든 특성들을 표현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홀로코스트 동안 유독 일인칭 서술이 그렇게 넘쳐났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일기의 이러한 능력 때문일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모든 감각이 약화되고, 어제가 오늘을, 오늘이 내일을 약속하지 못하는 그 혼돈의 시기에, 일기쓰기는 티끌만큼 남은 정체성을 보존케 해주고 자신들이 내몰린 그 엄혹한 세계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130). 이런 측면에서 곽차섭은 일기를 일종의 '줌인(zoom-in)의 역사학'이라고 칭한다: "하지만 어떤 한 부분을 당겨 본다고 해서 그 부분이 더 큰 부분을 무시하거나 사상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겨 본 세밀한 상을 통해 그것의 콘텍스트를 이루는 더 큰 부분의 보다 더 적절한 의미를 탐색하자는 것이다"(131). 일기를 '줌인의 역사학'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일기에 대한 연구에 매우 유용한 시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안젤라 훅스(Angela R. Hooks)가 엮은『문학으로서의 일기: 미국의 다문화주의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기』(*Diary as Literature: Through the Lens of Multiculturalism in America*)는 다양한 인종 집단의 일기를 통하여 미국 사회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서문에서 훅스는 일기를 '준-문학 장르'(a quasi-literary genre)라는 용어로 설명함으로써 일기가 갖는 독특한 형식적 특징을 인정하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문학 장르로 편입되기는 힘든 측면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훅스의 저서는 다양한 문화 주체가 일기라는 장르를 통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주류 담론을 전복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제시한다. 이처럼 일기 장르

가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는 면밀히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일기라는 형식이 문학 장르로서 지니는 취약성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특정 작가의 일기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작가의 창작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일기가 내포하는 정치적 의미나, 문학 작품 내에 일기 형식이 포함될 때 발생하는 재해석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일부 예외적인 연구를 제외하면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보다 폭넓은 자료 분석과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일기 형식이 지닌 정치적 함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III. 종이에 새긴 저항: 일기의 문학적 정치성 읽기

일기라는 장르는 사적 기록이라는 외양 아래 자아의 구성, 권력관계의 내면화, 그리고 시대적 이데올로기의 반영 등 복합적인 층위를 포함하고 있기에 일기가 단순한 사적 기록을 넘어, 자아와 타자, 개인과 사회, 기록과 침묵 사이의 긴장을 내포하는 복합적 서사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기라는 장르가 함축하는 문학적·정치적 의미는 보다 정밀하고 다층적인 분석을 요한다. 특히 일기문학의 역사적 전개와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자율성 및 전복성과 같은 핵심적인 장르적 속성이 개별 문학 텍스트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세 편의 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일기의 장르적 특성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기능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오웰의 『1984』에 포함된 윈스턴의 일기는 그 시도만으로도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의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감시와 통제를 상징하는 텔레스크린의 사각지대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위에 휘갈겨 쓴 개인의 내밀한 생각은 사적인 영역을 용인하지 않는 오세아니아의 전체주의 체제를 위협

한다. 그리고 조이스의『젊은 예술가의 초상』뒷부분에 삽입된 스티븐의 일기문은 스티븐이 추구한 이론으로서의 예술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읽을 수 있다. 시점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면서 주인공 스티븐은 서술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한다. 성장소설이 기존의 사회질서를 내재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젊은 예술가의 초상』뒷부분에 삽입된 스티븐의 일기는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울프의「유품」의 경우 주인공 안젤라의 일기는 남성중심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여성의 목소리를 상징한다. 안젤라에게 있어 일기는 정치인이라는 직업과 더불어 공적 정치 담론 영역을 상징하는 남편에게 저항하는 방식이며, 안젤라가 유품으로 남기는 일기는 남성중심 질서에 균열을 남긴다.

*

『1984』의 윈스턴은 텍스트 초반 텔레스크린의 사각지대에서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친다:

> 윈스턴이 시작하려는 일은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 일기 쓰기는 불법이 아니었다. (법이란 게 없으니 불법이란 것도 있을 리 없다.) 하지만 발각될 경우 사형 아니면 적어도 강제노동 이십오 년 형의 선고를 받을 것이 틀림없었다. . . . 그는 펜촉을 잉크에 적시고 잠시 머뭇거렸다. 짜릿한 전율이 뱃속을 훑고 지나갔다. 종이에 글을 쓴다는 것은 결단력이 필요한 중대 행위였다. 그는 작고 서툰 글씨로 다음과 같이 썼다.
>
> *1984년 4월 4일*
>
>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앉았다. 무력감이 그를 사정없이 짓눌렀다. 우선 올해가 1984년이 맞는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 . . 누구를 위해 이 일기를 쓰는가? 그는 별안간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미래를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세를 위해. (*1984* 6-7)

시간과 역사가 철저히 통제당하는 상황에서 날짜를 쓰는 일, 일기를 쓰는 일은 그 시도만으로도 이미 반역이다. 이렇게 반항하는 개인은 결국 증발(vaporize)될 수밖에 없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을 삭제해

버리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기는 이렇게 증발의 위험이 있는 순간과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전복적이다. 일기장을 마련하고 날짜를 기입하는 행동이 물꼬를 튼 자의식은 윈스턴으로 하여금 좀 더 과감한 내용을 일기에 적도록 유도한다:

> 윈스턴은 노트로 눈길을 돌렸다. 순간 그는 무기력하게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무의식중에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번에는 전처럼 서툰 글씨가 아니었다. 그의 펜은 육감적으로 매끄러운 종이 위에 미끄러지며 큼직한 대문자로 보기 좋게 다음과 같이 썼다.
>
> 빅 브라더를 타도하자
> 빅 브라더를 타도하자
> 빅 브라더를 타도하자
> 빅 브라더를 타도하자
> 빅 브라더를 타도하자
>
> (*1984* 18)

결코 입 밖으로 발설할 수 없는 문장을 일기라는 형식은 허용한다. "육감적으로"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윈스턴의 "펜"은 체제가 금지한 성적 욕망마저 일깨운다. 이후 이어지는 내용에서 윈스턴은 줄리아(Julia)와 개인적인 만남을 시도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는 등 체제가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감행한다. 이렇듯 『1984』에서 일기는 자의식과 반항 의식을 촉발하고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의 균열을 만드는 시작점을 이룬다.

윈스턴이 일기를 쓰는 행위는 단순한 사적 기록을 넘어,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의 공간을 창출하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제임스 A. 타이너(James A. Tyner)는 그의 논문 「자아와 공간, 저항과 규율: 조지 오웰의 『1984』에 대한 푸코주의적 읽기」("Self and Space, Resistance and Discipline: A Foucauldian Reading of George Orwell's *1984*")에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이론을 바탕으로 『1984』를 분석하며, 일기 쓰기가 어

떻게 감시와 규율의 공간 속에서 저항의 가능성을 모색하는지를 조명한다. 타이너는 “지식의 생산은 규율된 공간 내에서 저항의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129)며, 일기 쓰기가 감시 체제 하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윈스턴이 일기를 통해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고, 체제의 억압에 맞서는 주체로서의 자각을 드러내는 과정과 일치한다. 타이너는 푸코의 권력 개념을 인용하여, 권력이 단순히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작동하며, 저항 역시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윈스턴의 일기 쓰기는 전체주의 체제의 감시와 규율에 맞서는 미시적 저항의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윈스턴은 일기를 쓰며 비로소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대목에 대한 타이너의 분석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문장을 일기에 쓴 직후 윈스턴은 자신이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사실을 되새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제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걸 자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래 살아남는 것이 중요해졌다’”(Tyner 137). 일기라는 사적 글쓰기 행위는 윈스턴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며, 바로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체제에 저항하는 정치적 주체로 위치시킨다. 다시 말해 일기는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개인의 반감을 심리적 차원에서 사회적 저항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분석은 『1984』에서 일기 쓰기가 단순한 개인의 표현을 넘어, 권력과 저항의 역학 속에서 의미를 갖는 행위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윈스턴의 일기는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개인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

다음으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스티븐의 일기는 작가를 지망하는 스티븐 데덜러스가 추구하는 예술에 대한 실천, 즉 예술가로서 스티븐이 처음 만들어낸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다:

3월 21일 밤. 자유롭다. 자유로운 영혼과 자유로운 환상. 죽은 자들이

> 죽은 자들을 묻게 하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과 결혼하게 하라.
> 4월 13일. '턴디쉬(깔대기)'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그 단어를 찾아보았고 그것이 영어라는 사실과 또한 상당히 오래되고 무뎌진 영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학감과 그가 쓴 퍼넬(깔대기)이라는 단어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자신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자신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일까? 어느 쪽이든 지긋지긋하기는 매한가지이다!
> 4월 26일. 어머니는 내가 새로 산 중고 옷들을 정리하고 계신다. 어머니는 내가 인생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서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환영한다, 오 인생이여. 경험의 현실과 백만 번 조우하고, 아직 창조되지 않은 내 민족의 양심을 나의 영혼의 대장간에서 벼리기 위해 나는 가노라.
> 4월 27일. 옛 아버지시여, 오랜 명장이시여, 지금 제 옆에 계셔 주시고 또 저를 영원히 도와주소서. (*P* 248, 251, 252-53)

스티븐의 일기에는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사제 대신 선택한 예술가로서의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 생활인으로서 겪는 일상생활 등 다양한 삶의 양상이 고스란히 기록된다. 특히, 4월 26일자 일기는 사소한 일상과 예술적 비전이 어떻게 병치되고 교차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앞부분의 서술에서는 3인칭 화자의 시각을 통해서 스티븐의 생각과 행동이 걸러지고 굴절된다면, 일기 부분의 서사에는 스티븐의 목소리가 그대로 기록되며 서술의 주도권은 스티븐에게 넘어간다. 민족의 양심을 창조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기록한 일기와 더불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끝난다.

이러한 서술과 인물의 변화 과정을 터키의 문학연구자 세질 에르코츠(Seçil Erkoç)는 "스티븐 데덜러스는 일상의 경험 너머를 바라보고 그것을 예술적 영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다 통합된 비전의 첫걸음을 내딛는다"(Erkoç 77)고 지적하며, 일기를 통해 일상적 경험이 예술적 영감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처럼 일기는 그 자체로 스티븐이 '예술가'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창조하는 공간이 된다. 스티븐의 일기 쓰

기는 단지 형식적 장치가 아니라, 작품 구조의 핵심적인 지점이기도 하다. 랄프 마틴 플라이셔(Ralph Martin Fleischer)는 “제목, 서문, 그리고 일기는 조이스의 작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일기 형식이 서사의 경계를 구획하고 주제를 집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Fleischer 15). 일기 형식은 단순한 마무리 장치가 아니라 『젊은 예술가의 초상』 전체 구조를 거치며 서술자와 주인공이 일치하게 되고, 주인공 스티븐이 서술자 조이스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적 서사 전략이다. 더 나아가 작품의 서사적 시작과 끝을 구성하는 일기는 단지 내면의 기록을 넘어, 개인과 민족, 일상과 예술, 현실과 이상이 교차하는 서사의 문이 된다. 이러한 관점은 일기를 중심으로 한 주체 형성 및 서사 전환의 논의를 보다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일기는 조이스가 다음 작품 『율리시스』(*Ulysses*)에서 본격화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스티븐의 정신적 성장과 내면 탐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석의 지점을 제공한다. 슈테파니 얀징(Stefanie Jansing)은 “조이스가 사용한 의식의 흐름 기법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스티븐의 정신적 성장 이야기로 만든다”고 주장하며, 이 작품이 예술가의 성장서사로 기능하는 데 있어 서술 방식의 역할을 강조한다(Jansing 4). 이와 같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일기 형식은 서사의 형식적 전환을 넘어, 인물의 자의식과 창조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서술 장치로 기능한다. 일기는 외부 세계의 억압과 충돌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포착하며, 예술가로서의 자각이 일상적 기록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일기 형식은 단지 스티븐의 내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서사 전체의 흐름을 예술가로서의 성장 서사로 귀결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살펴볼 텍스트인 울프의 「유품」은 일기가 갖는 ‘전복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명쾌하게 드러낸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는 남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한다. 마치 미리 죽음을 예상하기라도

하듯 하찮은 주변인에게까지 유품을 남긴 아내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품은 남편은 결국 자신에게 유품으로 남긴 일기를 읽고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다:

> 물론 그에게는 특별히 무슨 물건을 남겨놓지는 않았다. 그녀의 일기장이 선물이라면 모를까. 그의 등 뒤로, 그녀가 글 쓸 때 사용하던 탁자 위에 초록색 가죽으로 장정한 열다섯 권의 작은 일기장이 쌓여 있었다. 결혼한 뒤로 내내 그녀는 일기를 썼다. 그로서는 말다툼이라고 부르기도 뭣하고 가벼운 실랑이라고나 할, 아주 드물었던 그 일들도 일부는 저 일기장 때문이었다. 일기를 쓰고 있을 때 그가 방으로 들어오면, 그녀는 언제나 일기장을 덮거나 손으로 가리곤 했다. "아니, 아니, 안 돼요." 이렇게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내가 죽은 다음이면 혹시 몰라도." 그러니 일기장을 유품으로 남겨놓은 셈이 되었다. 그녀 생전에 그들이 함께 나누지 않은 것이라곤 일기장뿐이었다. ("The Legacy" 1998)

모든 것을 남편과 공유하고 남편의 정치인으로서의 성공을 위한 내조에 자신의 인생 자체를 희생한 안젤라가 유일하게 남편과 공유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일기'이다. 결국 일기는 주체로서의 안젤라만의 공간이자 영역이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은 주체로서의 안젤라의 목소리이며, 저자 울프가 쓴 에세이 『나만의 방』(*A Room of One's Own*)이 상징하듯 '안젤라만의 방'인 셈이다. 아내가 유품으로 남긴 일기를 읽고, 남편 길버트(Gilbert Clandon)는 비로소 아내를 자신의 인생의 부속물이 아닌 '주체'로 받아들이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작가 울프의 작품에 있어서 일기와 편지 형식은 사적 글쓰기의 경계를 넘어, 문학적 창작의 원천이자 공적 발화로 기능하는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품」에서 안젤라의 일기가 단순한 사적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여성의 내면을 외화하는 서사 장치로, 나아가 공적 담론에 도전하는 정치적 글쓰기로 작동하는 방식과도 긴밀히 맞닿는다. 이와 관련하여 안날리사 페데리치(Annalisa Federici)는 울프의 일

기와 회고록을 “사적인 주변텍스트”(private epitexts)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울프의 사적인 주변텍스트는 그녀의 소설과 미학을 형성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이러한 글들은 주관성과 객관성,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모더니즘적 긴장을 구현하며, 그녀의 미학적 원칙이 처음으로 구체화된 창작의 실험실로 간주되어야 한다”(Federici). 즉, 일기는 단순한 내면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미학적 사유가 실험되고 정립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 지점에서 안젤라의 일기 역시 여성의 내면과 감각을 수집하고 조직하여 그 자체로 하나의 미적·정치적 기획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울프에게 있어서 일기는 주관과 객관, 그리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긴장을 구현한다.

또한 로브로 슈콥야낙(Lovro Škopljanac)은 울프의 소설 속 편지 형식이 수행하는 서사적·이데올로기적 역할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울프 소설에서 편지 형식이 수행하는 또 하나의 역할은, 편지쓰기 이면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폭로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발송되지 않거나 수신되지 않은 편지의 반복, 혹은 가부장제를 고발하는 수단으로서 편지의 활용을 통해 드러난다”(12). 편지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의 긴장을 노출시키는 서사적 장치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품」의 일기 또한 남성 중심의 언어 체계나 가족 제도에 침잠하지 않고 그에 균열을 내는 정치적 글쓰기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안젤라의 일기는 말해지지 못했던 여성의 욕망과 정서를 기록하고, 그 목소리를 통해 공적 세계에 침투하며 질서의 경계를 흔든다.

IV. 나가며

본 논문은 조지 오웰의 『1984』,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버지니아 울프의 「유품」에 삽입된 일기 형식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일기가 문학 장르로서 지니는 서사적 특성과 정치적 잠재력을 고찰하고자 하

였다. 전통적으로 일기는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내면의 정서를 기록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오랫동안 문학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 위치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일기가 오히려 가장 사적인 양식을 통해 공적 영역에 균열을 가하는 강력한 문학적 실천일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세 작품은 서로 다른 문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일기를 통해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주체를 재구성하는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1984』에서 윈스턴이 은밀히 작성하는 일기는 전체주의 체제를 향한 내면의 저항이며, 감시 사회의 폐쇄성과 통제에 맞서는 개인적 발화의 공간이다. 일기는 텔레스크린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시작되지만, 그 행위는 곧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적 시도로 변모한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마지막 장에서 스티븐이 남긴 일기는 3인칭에서 1인칭으로의 시점 전환을 통해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삶과 서사를 직접 장악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일기를 통해 스티븐은 추상적인 예술 이론의 단계에서 벗어나, 예술가로서의 실천적 자각에 이르며, 이는 성장서사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한편 「유품」의 안젤라가 남긴 일기는 외적으로는 조용하고 헌신적인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온 여성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목소리와 욕망을 드러낸다. 그녀의 일기는 남성 중심의 공적 담론에 포섭되지 않는 또 다른 서사이며, 유품이라는 형식으로 전달되는 진실의 폭로는 당대 남성 중심 질서에 균열을 남긴다.

이처럼 작품 속에 편입된 일기는 단순한 서술 방식의 변화를 넘어, 문학 텍스트 전체의 정치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중심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개인의 사적 경험을 기록하는 이 장르는 동시에 사회적 제약, 규범, 권력과의 접점을 드러내며, 공적 질서의 경계를 침범하는 힘을 갖는다. 따라서 일기는 사적 글쓰기의 외양을 띠면서도, 공적 서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이 점에서 일기는 문학적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서사 전략이자, 정치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작동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문학 연구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일기 형식에 문학적 위상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학 텍스트 안에서 사적/공적, 중심/주변, 기록/서사라는 이분법적 경계를 허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일기는 텍스트 내부에 내장된 '다른 목소리'의 형식을 띠며, 중심 서사에 균열을 일으키는 전략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독자에게는 고백적 진정성과 정치적 함의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독해의 층위를 제공한다. 추후 일기 형식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장르 연구와 더불어, 더 많은 작가의 일기문학 혹은 자전적 글쓰기에 대한 비교 문학적 탐구가 이어진다면, 일기가 가진 사적 글쓰기의 정치성, 그리고 그 전복적 가능성은 더욱 풍부하게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은 언제나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지니며, 텍스트를 구성하는 주변부의 형식들이 새로운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복적 가능성 또한 끊임없이 열려있다. 그런 점에서 일기를 다시 읽는 일은 단지 하나의 장르를 복원시키는 작업을 넘어서, 문학의 본질을 새롭게 사유하고, 문학 텍스트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비평적 실천이 될 것이다.

(안양대)

인용문헌

곽차섭.「일기 연구의 이론과 실제: 서양의 경우를 중심으로」.『코기토』, 제85권, 2018, pp. 113-42.

손정희.「엘리스 제임스와 '치유적 일'로서의 일기 쓰기」.『미국학논집』, 제54권, 2022, pp. 5-30.

최은아.「일기에서 SNS로: 매체변화에 따른 일기의 장르사적 연구」.『독일어문화권연구』, 제21권, 2012, pp. 97-125

Aurelius, Marcus. *Meditations*. Translated by Gregory Hays, Modern Library, 2003.

Bunkers, Suzanne L. "Diaries: Public and Private Records of Women's Lives." *Legacy*, vol. 7, no. 1, 1990, pp. 17-26.

Erkoç, Seçil. "An Artist in the Making: Stephen's Search for Self-Identity in James Joyc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nkara University Journal of the Faculty of Languages and History-Geography*, vol. 58, no. 2, 2018, pp. 71-81.

Federici, Annalisa. "'This Loose, Drifting Material of Life': Virginia Woolf's Diaries and Memoirs as Private Epitexts." *E-Rea: Revue Électronique d'Études sur le Monde Anglophone*, vol. 15, no. 2, 2018, journals.openedition.org/erea/5937. Accessed 27 May 2025.

Fleischer, Ralph Martin. "Creating Stephen, the Artist: Reinterpreting Joyce's *Portrait* through Analysis of the Narrator." Master's thesis, Stockholm University, 2012.

Frank, Anne. *The Diary of a Young Girl*. Introduction by Eleanor Roosevelt, translated by B. M. Mooyaart-Doubleday, Bantam Books, 1993.

Hooks, Angela R. "Diaries of Me, Myself, and Grandma." *Diary as Literature: Through the Lens of Multiculturalism in America*, edited by Angela R. Hooks, Vernon Press, 2020, pp. 157-74.

Jansing, Stefanie. “Selected Narrative Techniques in James Joyc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Seminar paper, University of Münster, 2007.

Jonson, Ben. *Volpone; or The Fox*. Edited by John W. Creaser, New York UP, 1978.

Joyce, Jam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Viking, 1977.

Lejeune, Philippe. *On Diary*. Edited by Jeremy D. Popkin and Julie Rak, translated by Katherine Durnin, U of Hawai‘i P, 2009.

Merry, Bruce. “The Literary Diary as a Genre.” *The Maynooth Review / Revieú Mhá Nuad*, vol. 5, no. 1, May 1979, pp. 3-19.

Orwell, George. *Nineteen Eighty-Four*. Penguin Books, 2000.

Pepys, Samuel. *The Diary of Samuel Pepys: A New and Complete Transcription*. Edited by Robert Latham and William Matthews, vol. 1, U of California P, 1970, www.pepysdiary.com/diary/1660/01/01/. Accessed 25 Apr. 2025.

Rush, Janice L. “The Diary Genre of Literature.” Master’s thesis, Kansas State Teachers College, 1970.

Škopljanac, Lovro. “Letters in Virginia Woolf’s Novels.” *Knjizevna Smotra*, vol. 40, no. 1, 2008, pp. 11-22, www.jstor.org/stable/26284075. Accessed 27 May 2025.

Stauffer, Donald. *The Art of Biography Before 1700: Eminent Lives and Anonymous Lives*. U of Chicago P, 1941.

Swift, Jonathan. *The Journal to Stella.* Edited by Harold Williams, Oxford UP, 1948.

Tallet, Pierre, and Mark Lehner. *The Red Sea Scrolls: How Ancient Papyri Reveal the Secrets of the Pyramids.* Translated by Kathryn Piquette, Thames & Hudson, 2022.

Tyner, James A. “Self and Space, Resistance and Discipline: A Foucauldian

Reading of George Orwell's *1984*." *Social & Cultural Geography*, vol. 5, no. 1, 2004, pp. 129-49.

Vadde, Aarthi, et al., editor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W. W. Norton & Company, 2024.

Woolf, Virginia. "The Legacy."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edited by M. H. Abrams, 6th ed., vol. 2, W. W. Norton & Company, 2001, pp. 1998-2002.

Abstract

Rereading Diary Politically:
1984,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nd "The Legacy"

Kyoungsook Kim

This essay reexamines the literary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diary as a narrative form by analyzing the inserted diary texts in George Orwell's *1984*, James Joyc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and Virginia Woolf's "The Legacy." Traditionally marginalized in literary history, the diary has often been dismissed as a private or auxiliary form of writing rather than a serious subject of critical inquiry. However, this study argues that the diary is not merely a medium of self-reflection, but rather a subversive literary form capable of political intervention and narrative disruption.

In each of the selected texts, the diary serves as a crucial device through which characters assert agency, confront dominant ideological structures, and articulate counter-narratives. Winston's diary in *1984* challenges the totalitarian regime's absolute surveillance by creating a secret space for autonomous thought. In Joyce's novel, Stephen's diary marks a narrative shift to the first person, signaling his emergence as a self-conscious artist resisting imposed social norms. Woolf's protagonist Angela, through her posthumous diary, reveals suppressed desires and critiques the male-dominated political discourse embodied by her husband.

By foregrounding these diary texts, this study highlights the diary's dual function as both a personal record and a form of public discourse. It underscores how the diary can capture interior transformation, social awareness, and resistance to power. Ultimately, this essay seeks to restore the

literary status of the diary and reposition it as a potent vehicle for political imagination and narrative experimentation. Through this reframing, the study invites further exploration of the diary's potential to renegotiate the boundaries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the marginal and the central, within literary texts.

■ Key words : diary, Orwell, Joyce, Woolf, genre
(일기, 오웰, 조이스, 울프, 장르)

논문접수: 2025년 5월 30일
논문심사: 2025년 5월 30일
게재확정: 2025년 6월 16일